



Received: 2022/01/22
Revised: 2022/02/22
Accepted: 2022/03/18
Published: 2022/03/31

***Corresponding Author:**

Kwang-Soob Ko

Division of Naval Officer Science,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91, Haeyangdaehak-ro, Mokpo-si, Jeollanam-do, 58628, Republic of Korea

Tel: +82-61-240-7154

Fax: +82-61-240-7127

E-mail: nama1@mmu.ac.kr

이순신의 선조 출전 명령 거부설에 대한 검증연구

The Verification Study on Yi Sun-Shin's Refusal of King Seonjo's Dispatch Order

고광섭*

목포해양대학교 해군사관학부 교수

Kwang-Soob Ko*

Professor, Division of Naval Officer Science,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Abstract

최근 '이순신의 선조 출전 명령 거부설'에 대한 기존의 학설을 뒤집는 저자의 1차 연구 논문이 공개된 후 관련 학계, 이순신 연구가 및 언론 등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기 발표된 논문은 정유재란 시기 이순신과 권윤을 지휘했던 4도 도체찰사 이원익이 쓴 장계가 발굴되기 전의 연구였다. 따라서 정유재란 발발 전 이순신의 명확한 작전 계획이나 참전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저자의 1차 연구 결과에 대한 추가적·보완적·검증적 성격을 갖는 후속 연구로, 새롭게 확보된 정유재란 전·후 이원익이 쓴 장계 기록을 기반으로 연구한 내용이다. 이 논문은 정유재란 발발 직전까지 이순신의 생생한 작전 계획을 담고 있는 새롭게 확보된 이원익의 사료를 반영하고 분석하여 최초로 공개한 내용이다. 연구 결과 『선조수정실록』에 근거한 '이순신 출전 거부설'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었다.

Recently, the author's first research paper overturning the theory of Yi Sun-Shin's refusal to dispatch the navy against Japanese invasion was published. Since then, it has received great attention from academia, researchers for Yi Sun-Shin, and the public. In the previously published paper, the research results were derived by analyzing only the historical materials prior to the discovery of Lee Won-ik's Janggye. There were aspects that did not reflect Yi Sun-Shin's operational plans or records that could confirm his will to participate in the war.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theory of Yi Sun-Shin's refusal to dispatch the navy against Japanese invasion is not true.

Keywords

이순신(Yi Sun-Shin),
이원익 장계(Janggye Written by Lee Won-ik),
선조명령 거부 (Refusal of Order of King Seonjo),
검증연구(Verification Study),
정유재란(Jungyoo War)

Acknowledgement

본 논문의 일부는 2021년 12월 제3회 민·학·관·군 정유재란 합동심포지움에서 발표되었음.

1. 서론

충무공 이순신이 오늘날까지도 우리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이유는 세계 해전사에 빛나는 해전 승리의 명장인 이유도 있지만, 생전에 이충무공이 보여준 살신보국의 삶 때문일 것이다. 특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삭탈관직당한 백의종군 고난의 시기에 이충무공이 보여준 구국의 행적은 난중일기에 기록되어 오늘날까지도 오롯이 전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충무공이 백의종군의 탄핵을 받은 근본 요인이라 인식되고 있는 일명 '이순신의 출전 거부설'에 대한 실체는 밝혀진 바가 없었다. 따라서 기존의 이순신 연구가나 대중들은 부당한 선조의 출전 명령을 거부한 억울한 이순신으로 인식하거나 또는 선조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소신 있는 장수 등으로 생각해 왔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정유재란 직전 이순신이 선조의 출전 명령을 받고도 '출전 불가 사유를 들어 선조의 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선조수정실록』 1597년 2월 1일 기사 기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순신의 선조 출전 명령 거부설'에 대한 기존의 학설을 뒤집는 저자의 1차 연구 논문이 공개된 후 관련 학계, 이순신 연구가 및 언론 등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1-5].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발표된 논문은 정유재란 시기 이순신과 권윤을 지휘했던 4도 도체찰사 이원익이 쓴 장계가 발굴되기 전의 연구였다. 따라서 정유재란 발발 전 이순신의 명확한 작전 계획이나 참전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본 연구는 저자의 1차 연구결과에 대한 추가적·보완적·검증적 성격을 갖는 2차 연구로,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의 직속상관으로서 선조의 명을 직접 집행하고 감독했던 4도 도체찰사 이원익의 장계에서 발굴된 기록

을 집중분석하여 최초로 공개한 내용이다.

『오리선생문집』에서 발굴된 4도 도체찰사 이원익의 장계 기록 분석과 연구를 통해 정유재란 직전 이순신이 선조의 출전 명령을 받고도 출전을 거부했다는 기존의 『선조수정실록』에 근거한 ‘이순신 출전 거부설’은 사실 무근임을 밝혔다.

2. 1차 연구 핵심 내용 및 연구배경

2.1 1차 연구 주요 결과

정유재란 발발 전·후 국왕이 주관하는 어전회의는 비변사 각료와 대신들이 참석해 전쟁상황을 점검하고 대처 방안을 다루었다. 오늘날 국가안전보장회의 겸 전쟁지휘부 성격을 갖는 전시 최고 의사결정 기구였다. 『선조실록』 군사 관련 기록은 사실상의 전시 작전상황일지로 이순신을 포함한 군지휘관 및 도체찰사 등이 현장에서 보고한 장계 등을 토대로 논의하는 어전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선조실록』에는 정유재란 발발 전·후 정국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생생한 자료들이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록되었다.

1차 연구에서는 정유재란 시기 ‘이순신의 출전 거부설’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이순신 사후 60여 년 후 완성된 『선조수정실록』 1597년 2월 1일 기록의 진위 여부를 살펴보았다.

『선조수정실록』 2월 1일자 기록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징비록, 이충무공행록, 이충무공전서 등에 기록된 내용과의 비교는 물론 『선조실록』에 기록된 군사 관련 모든 내용을 상호 검토·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1597년 2월 1일 『선조수정실록』 기록과는 달리 이증간첩 요시라가 적의 침공 날짜를 알려주지 않은 점, 선조의 출전 명령을 이순신에게 전달한 사람이 기록에 나와 있는 사람과 다른 점, 선조의 출전 명령을 받은 이순신이 올린 장계에는 이순신의 강력한 출전의지가 담겨 있고, 출전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점, 왜군 수장 가토군이 침공한 후 이순신이 경상 우병사와 더불어 육군과 합동으로 부산까지 출병한 점 등을 『선조실록』을 근거로 확인함으로써 『선조수정실록』 1597년 2월 1일 기록에 근거한 이순신의 ‘출전 거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6,20].

2.2 연구배경

전술한 바와 같이 이순신이 선조의 명을 전달받고 군사

를 출전시키지 않았다는 근거는 이순신 사후 약 60여 년 후에 완성된 『선조수정실록』 1597년 2월 1일 기사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음은 『선조수정실록』 1597년 2월 1일 기사 핵심 내용이다[7].

“요시라를 보내서 말하기를 ‘모월 모일에 가등청정(加藤清正; 가토 기요마사)이 어느 섬에서 잘 것이니, 귀국에서 만약 수군을 시켜 몰래 잠복해 있다가 엄습하면 결박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응서(김응서)가 이로써 보고하니, 상이 황신을 보내 순신에게 비밀히 유시하였다. 그러나 순신은 ‘바닷길이 험난하고 왜적이 필시 복병을 설치하고 기다릴 것이다. 전함을 많이 출동하면 적이 알게 될 것이고, 적계 출동하면 도리어 습격을 받을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거행하지 않았다.”

이 『선조수정실록』 기록은 최근까지도 각종 매체, 역사서 또는 이순신 관련 간행물 등에 반복 인용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각종 역사 드라마나 역사 해설 등에서도 정유재란 시기에 선조의 이순신 단죄의 근본 요인을 이순신이 ‘선조의 부당한 출전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데 역점을 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의 머릿속에는 이순신이 선조의 출전 명령을 부당한 명령으로 간주하여 출전을 거부하였고, 선조는 이를 ‘항명죄’로 둔갑시켜 이순신을 단죄하였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8-11].

과연 이게 사실일까?

이순신의 출전 거부설의 근거인 1597년 2월 1일 『선조수정실록』 기록은 다음 몇 가지의 합리적 의문점이 있다.

시대적 상황과 이순신의 기본군사전략 측면으로는 다음 두 가지의 의문점이 있다.

첫째, 군주시대에 적이 영토를 침략하는 상황에서 국경수비대 사령관 격인 통제사 이순신이 군통수권자인 국왕의 출전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가? 둘째, 적의 영토 침공을 목전에 둔 통제사 이순신이 적의 복병을 두려워하고 대군을 출동시킬 경우 적에게 노출될 위험, 소군이 출전했을 때 적의 기습을 당할 위험을 염려하여 출전을 거부했다는 소극적 군사전략은 이순신의 공격적인 군사전략과 상충되지 않는가?

상기 두 가지 측면 외에 이순신이 치른 해전사례와 왜군 침공 후 출전 감행 상황 측면에서도 의문은 더해진다.

이순신은 백의종군 후 괴멸된 조선 수군 13척 전선으로 사즉생의 자세로 수백 척이 넘는 적을 상대로 결사 항전하여 대승을 거둔 바 있다. 더욱이 임진왜란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에 출전하여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싸우다 장

렬히 순국하기까지 했다. 또 이순신은 가토군이 침공한 후 출전 항로에 적의 위협이 침공 전보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앞바다로 경상 우병사 김응서와 합동작전을 감행한 바 있다.

저자는 국내 이순신 연구의 길잡이로 평가되는 노산 이은상의 『난중일기』 번역 이래 오늘날까지 관련 학자들의 이순신 연구 내용을 분석한 바, 난중일기 번역, 이순신 리더십 및 정신, 해전 전략·전술 등에 대한 연구는 활성화되었으나, 정유재란 시기 ‘이순신의 출전 거부설’에 대한 연구나 토론 등은 거의 없었음을 인지해 왔다. 이러한 이순신에 대한 국내의 연구 환경, 장기간의 합리적 의문, 지속적인 관심 및 이순신 항명 문제에 대한 대중의 고착된 인식 등이 연구의 자극제가 되었다.

3. 본론

3.1 4도 도체찰사이원익의 발굴된 장계 기록 분석의 의의

앞서 언급한 저자의 1차 발표 연구 핵심 결과는 이순신 생전의 『선조실록』 기록과 이순신 사후 작성된 징비록, 이충무공행록, 『선조수정실록』, 이충무공전서 등을 주로 참고했다. 이 중에서도 전서 『선조실록』은 오늘날의 전서 사령부의 작전상황일지와 유사한 것으로 변방의 장수와 민·군의 전서 지휘권 및 작전권을 갖는 도체찰사 등이 왕명 수행 결과 보고 등이 담긴 장계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근거가 명확하고 신뢰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실록』에도 변방의 장수들이나 체찰사 등이 보고한 모든 장계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지 못했다. 따라서 정유재란 발발 전·후 4도 도체찰사로서 어명을 받들어 도원수 권율은 물론 이순신과 김응수 등 수군과 육군의 군 지휘관은 물론 민간 순찰사 등을 지휘·감독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이원익 장계 역시 『선조실록』에는 모두 수록되지 못했다. 따라서 기발표 연구 결과에서 4도 도체찰사 이원익의 장계 기록은 『선조실록』에 수록된 것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조실록』에 수록되지 않은 체찰사이원익의 장계를 추가로 검토·분석하는 일은 정유재란 발발 전·후의 전황과 정세 파악을 하는데 매우 유의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국내 어느 연구에서도 정유재란 시기 ‘이순신의 출전 거부’의 핵심 근거인 『선조수정실록』의 실제 파악 연구 등에 참고된 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4도 도체찰사

이원익이 직접 쓴 장계 기록을 최초로 분석·연구하는 일은 매우 흥분되고 역사적인 일이라 생각했다. 전시에 육군과 수군의 최고 지휘관인 권율 도원수와 3도 수군통제사 이순신을 비롯한 경상 우병사 김응서 등 전선의 야전 사령관들을 지휘했던 당사자가 직접 국왕에게 보고한 보고서를 연구에 접목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3.2 정유재란 발발 전·후 날짜별 이순신의 작전 계획 분석

『오리선생문집』 속집 제2권에 수록된 4도 도체찰사(충청·전라·경상·강원) 이원익의 장계는 1596년 15건, 1597년 14건으로 총 29건이 전해진다. 이 중 왜군 재침의 조짐이 있었던 1596년 1월부터 4월까지 13건, 12월 2건이 있고, 1597년 14건 중 왜군의 침공 전·후 통제사 이순신과 상관성이 있는 1·2월 기간에는 8건, 그 외 6건이 전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정유재란 발발 전·후 군의 핵심 인물인 권율, 이순신 및 김응서 등과 연관된 기록과 당시의 전황을 살펴볼 수 있는 핵심 장계 등을 검토·분석했다.

3.2.1 1596년 1월~4월 이원익의 장계 주요 내용[12]

- 1월 26일: “체찰사의 임무는 군사와 민간의 일을 겸하였으니 만일 변방의 화가 조금 느슨할 때라면 편의에 따라 도울 수 있으나, 만일 변이 조만간에 일어난다면 오늘날의 일은 임진년에 비하여 더욱 어려울 것이므로, 매우 우려가 됩니다” 이외에도 군사 총괄 도원수 차출 임명을 건의했다.
- 2월 10일: “남쪽 지방 장수들의 경우 우도의 수군은 비록 병력은 약하나 통제사 이순신이 사무를 잘 처리하여 조리가 있으므로, 그 아래의 각 장수들이 우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양은 갖추고 있습니다. 좌도의 수군은 우도에 비하여 더욱 영성한테 그래도 전 수사 이수일이 꽤 단속하였으므로 큰 과실은 없습니다.”
- 3월 14일: “연해의 수령들이 수군을 거느리고 오래도록 한산도에 머물러 본읍의 일은 전혀 돌보지 않으니, 관아의 방비가 허술하고 백성들의 원성이 날로 늘어갑니다. 대신할 장수를 정해 보내는 것이 실로 사리에 합당하지만, 한산도의 사정을 살펴보면 수령들이 거느리고 가지 않기 때문에 젊고 튼튼한 병졸들은 모두 모면하고 늙고 쇠약한 사람들을 숫자에 채워 들여보내므로 급난에 쓸 수 없으니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 4월 19일: “변란이 생긴 이후로 국가의 모든 경비와 당병의 지 대하는 비용(음식물과 일용품을 공급하는 일) 오로지 이 도 (전라도)에 책임 지우고, 또 수군의 고역도 다른 일보다 백배 나 됩니다.”

이원익은 4도 도체찰사로 부임한 이래 남쪽으로 내려가 성주에 지휘부를 세우고 동분서주하며 육군과 수군의 점검결과를 조정에 보고했다. 전반적인 준비상태가 미흡하여 적이 침공했을 시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수군의 경우도 통제사 이순신의 지휘력으로 나름대로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지만, 연해의 각 지역에서의 군사(수군) 확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흐트러진 민심과 각 지방 수령들의 소극적인 협조 때문으로 당시 정국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따라서 통제사 이순신의 훌륭한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예하 수군의 군사력 운용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2.2 1596년 12월 이원익의 장계 주요 내용[13]

· 12월 7일: “수군을 많이 내어 해로를 막는 것이 오늘날의 급선무인데 수군이 빈약하여 모양을 이루지 못하니, 매우 민망하고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부찰사 한효순으로 하여금 호남과 호서로 달려가 선척(전함)·격군·군량 및 과번결군(過番闕軍: 군무에서 이탈한 군사)을 뽑는 일 등의 일을 조치하여 화급히 들여보내고, 수군의 형세가 조금 갖춰진 뒤에 이순신은 스스로 부산의 길을 가로막으려 하니, 다른 장수들을 정하여 한산 및 전라의 해로에 나누어 주둔시킬 것입니다.”

· 12월 26일: “수군을 징발하는 일을 지금 바야흐로 급급히 거행하며 수군의 형세가 약간 모양을 이루었고, 신이 지금 사천에 이르러 통제사 이순신과 상의한 바 비록 소서행장이(고니시) 등의 오가는 배들을 미처 쳐부수지 못하였으나, 가등청정(가토)이 바다를 건널 때는 별도로 물색하여 즉시 막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아울러 이순신이 지휘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서행장과 가등청정 두 괴수의 사이에서 이순신이 주선하려는 데 진중에 물건이(첩자 확보를 위한 뇌물) 없어 대응하기 어려우니 은자 약간 냥을 해당 관아로 하여금 한산도의 진중에 내려보내게 해주소서. 그리고 신이 싸가지고 온 은자는 상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일(첩자 확보)을 주선하는 데 쓰기도 하는데 다 떨어져 가는 형편이니 신이 있는 곳에도 알맞게 내려 보내주소서”

1596년 12월은 조선 조정에서도 왜군의 재침을 기정사실로 인식하고 있는 시기였다. 이원익은 4도 도체찰사 임무를 부여받고 남쪽으로 내려가 육군과 수군의 군사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수군의 경우 부임 초부터 군사력 보강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취약하여, 부체찰사를 직접 호남과 호서에 보내 민간 영역의 지원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다. 한편 12월 7일 장계에는 이순신은 어느 정도 수군이 정비되면 부산으로 직접 출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여 보고했다.

12월 26일 이원익의 장계의 핵심 내용은 첫째, 소위 왜적으로부터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물건(뇌물, 공작금)을 보내 달라는 내용이고, 둘째, 이순신이 가토가 바다를 건널 때 적을 쳐부수겠다는 이순신의 전략과 출전 의지 보고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앞서 1596년 12월 5일[14] 어전회의에서는 선조는 대신들에게 아래와 같은 지시를 내렸다.

“청정(가토)이 1~2월 사이에 나온다고 하니, 미리 통제사로 하여금 정탐꾼을 파견하여 살피게 하고, 혹 왜인(첩자)에게 후한 뇌물을 주어 그가 나오는 기일을 말하게 하여, 바다를 건너 오는 날 해상에서 요격하는 것이 상책이다. 다만 바다를 건너 오는 날을 알아내기가 어려울 따름이다.”

상기 12월 5일 기록은 정유재란 전 1597년 1~2월에 적 침공이 예견되니 도해 날짜를 파악하여 적을 요격하라는 이순신에게 내린 출전 명령이다. 12월 8일 어전회의[15]에서는 이 명령은 극비 사항으로 선전관을 파견하여 남쪽에 있는 도체찰사 이원익과 도원수 권율에게 알려서 때를 놓치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선조실록』 12월 5일 및 12월 8일 기록 검토 결과 12월 26일 이원익의 장계 내용은 적을 해상에서 요격하라는 출전 명령 조치에 대한 4도 도체찰사 이원익의 결과 보고임을 알 수 있다.

한편 12월 5일 선조가 내린 출전 명령에 대해 이순신도 강력한 출전 의지를 표명하며 출전 명령을 내려 달라는 장계를 1597년 1월 1일 올린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16].

3.2.3 1597년 1월 이원익의 장계 주요 내용[17]

· 1월 4일: “3도의 수군을 지금 서둘러 징발하고 있는 중이니 그들이 집합될 때를 기다려서 먼저 거제도(거제도)를 점거하고 곧 해로를 막아 다가오는 적을 죽이며, 육지의 거사는 적당한 기회를 보아 움직이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아래 공개한 Fig. 1은 1월 12일 이원익의 한문 장계 내용으로 한문본 오리선생문집에서 발췌하였다. 1월 12일 장계는 분량이 다소 많은 관계로 필요한 부분만 수록하였다.

· 1월 12일: “신은 이미 이순신과 일을 깊이 의논하였고, 한산진에도 소서행장(고니시)과 비밀히 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주선하게 했으니 그가 비밀히 통하는 것을 기다려서 배를 내어 서로 대기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수군이 집합하여 형세가 이루어지면 그가 비록 은밀히 보고해오지 않더라도 가깝고 편리한 곳에 나아가 정박하였다가 다가오는 적을 막을 것도 분부하였습니다.”

“지금 받은 전교 중에 ‘김응서는 투항한 왜인으로서 성품이 진실한자를 데리고 함께 배를 타라’ 하셨는데, 그때에 가서 김응서를 수군에 들여보낼 것을 깊이 헤아려 지휘하였습니다.”

람도 거슬리므로 형세가 미칠 수 없으니, 부득이 가덕도의 동쪽 바다에 나아가 정박하여 장소포에 진을 치기도 하고 혹은 다대포의 앞바다에 진을 치기도 하면서 기회를 보아 맞아 싸운다는 것이니 이순신의 생각이 이와 같았습니다. 신은 여러 둔진의 왜적들이 가까이 다가와 죽 벌려있으면 출입하고 진퇴하기가 불편한 것을 염려하였더니, 이순신은 ‘지금 거사하려고 하면 형편상 몰래 다니거나 가만히 숨어 있을 수 없다. 언덕에 있는 적이 배를 타면 우리는 그들을 공격할 수 있고 언덕에 있으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기세가 없는 것이니, 형세가 외로운 적을 피할 이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Fig. 1의 1월 12일 장계 내용은 『선조수정실록』 1597년 2월 1일 기사에 기록된 ‘이순신의 출전 거부설’을 뒤집는 결정적인 입증 사료이다. 이 기록을 토대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왜군(가토군) 침공 시점 가덕도와 다대포로 출전하겠다는 이순신의 작전 계획이 확인되었다.

1597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변방에 있는 체찰사와 이순신의 출전 준비와 수군 전략도 좀 더 구체화된다.

1월 4일의 보고에는 긴급하게 징발되고 있는 3도 수군을 우선 거제도 이동시켜 점거한 후 해로를 막고 다가오는 가토 침공군을 치겠다는 전략이었다.

1월 12일 보고에는 이순신의 작전 계획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원익이 선조가 1월 2일 내린 하명에 대해 후속 조치 결과 보고를 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적시되고 있다. 선조는 『선조실록』 1월 2일 어전회의에서 ‘육군장수 김응서와 통제사 이순신이 공을 다투지 말고 합동으로 적을 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체찰사 이원익이 책임을 지고 김응서와 이순신을 지휘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바 있다[21].

1월 12일 장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순신이 거제도를 지나 가덕도 동쪽에서 부산 다대포 권역으로 수군을 전진 배치하여 가토군을 직접 치겠다는 매우 공격적이고 과감한 작전을 세우고 있었음이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왜군 침공 첫날인 1월 12일 직전까지도 이순신의 출전 계획은 일관되게 부산 해역으로 출전하여 적을 차단하고 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적의 방해 및 거부 작전을 정면 돌파하면서 출전하겠다는 이순신의 공격적인 작전 계획이 확인되었다.

1월 12일 장계 내용 중 ‘신은 여러 둔진의 왜적들이 가까이 다가와 죽 벌려있으면 출입하고 진퇴하기가 불편한 것을 염려하였더니’라는 기록은 이원익이 이순신 작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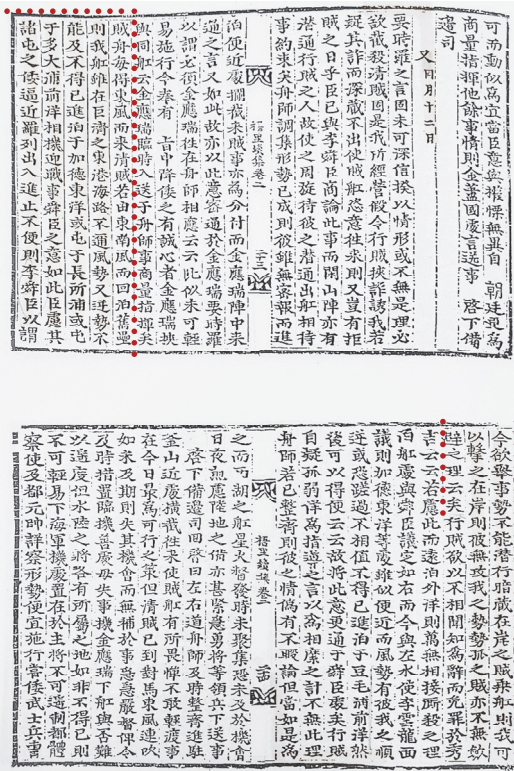


Fig. 1. 오리선생문집(한문본)에서 발췌한 이원익의 1597년 1월 12일 장계 내용[18]

아래 내용은 위의 한문본 장계의 일부로 적색 표시를 해 둔 부분의 국역본 내용이다.

“적의 배는 매번 동풍을 타고 오는데 가등정청(가토)이 만일 동남풍으로 말미암아 옛 보루에 정박한다면 우리나라의 배가 비록 거제의 동쪽 항구에 있다 하더라도 해로가 가깝지 않고 바

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당시 안골포 등지에 주둔하고 있는 왜적이 가덕도 및 다대포로 출동하는 조선 수군의 진출을 막고 퇴로를 차단하는 등의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작전의 위험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원익의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이순신은 ‘지금 거사하려고 하면 형편상 몰래 다니거나 가만히 숨어 있을 수 없다. 언덕에 있는 적이 배를 타면 우리는 그들을 공격할 수 있고 언덕에 있으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기세가 없는 것이니, 형세가 외로운 적을 피할 이치가 없다’라고 이원익의 우려를 오히려 불식시키며, 공격적으로 가덕도와 다대포로 출전을 감행하고자 했음이 확인되었다.

즉 『선조수정실록』 1597년 2월 1일 기록 ‘그러나 순신은 바닷길이 험난하고 왜적이 필시 복병을 설치하고 기다릴 것이다. 전함을 많이 출동하면 적이 알게 될 것이고, 적게 출동하면 도리어 습격을 받을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거행하지 않았다’는 기록과는 완전 상반됨을 알 수 있다.

3.2.4 왜군 침공 인지 후 1597년 1월 20일~2월 1일 이원익의 장계 주요 내용[19]

- 1월 20일: “가등청정(가토)이 옛 진루에 당도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급하게 아뢰었고, 적의 배가 와서 정박한 숫자를 알려고 했는데 혹은 나누어 정박하였다 하기도 하고, 혹은 더 왔다 하기도 하는 등 각처에서 정탐한 보고가 각각 다릅니다.”
“좌수사 이운룡은 ‘정박한 대대 크고 작은 것은 아울러 2백여 척이 되는데... 모두 서생포로 들어갔다’고 하고... 양산군수 김극유는 ‘600백여 척이 이미 나왔는데 가등청정에게 소속된 배는 서생포로 돌아가 정박하고, 그 나머지 배들은 우도의 각진에 나누어 정박하였다’ 하였으며, 동래현령 이유성은 ‘가등청정의 군사는 7~8천명에 불과한데 바다 가운데서 바람을 만나 익사하고 이르러 정박한 숫자는 7천여 명이며, 그 뒤로는 더 나온 군사가 없다...’ 보고해 왔습니다. ... (중략) ... 도원수 권율은 일찍 한산도로 향했고 신은 경주에 주재하고 있으므로 길이 워낙 멀어 수군이 얼마나 어떠한 모양으로 지휘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서로 듣지 못하니 매우 민망하고 염려스럽습니다.”
- 2월 1일: “우리나라가 믿는 것은 오직 수군일 뿐인데 가등청정이 바다를 건널 때 그 기회를 놓치매 군법으로 논죄하면 수군의 장수는 의당 그 죄를 면하지 못할 것이니, 참으로 전교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세로 말하면 호·영의 연해는 임진·계사년 이후로

단지 수군만이 흩어져 없어진 것이 아니라 촌민들도 모두 이산하여 일대의 지방이 거의 비어버렸습니다. 신이 이 뜻을 가지고 전후 장계를 올린 것이 한두 번 정도가 아닙니다. 해진이 변란을 대기한 지 이미 5년이 되었으므로 배와 그 장비가 전에 비해 많이 감소된 것은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독축해 징발하고 항상 정돈을 가하려 해도 그렇게 할 방법이 없는데, 충청도와 전라도의 배는 겨울이면 으레 놓아 보내므로 한산도에 머물러 있는 배는 그 수가 적으니 이 적은 수의 배로서는 형편상 바다 가운데서 요격하기 어렵습니다.”
“부사 한효순이 지난해 12월부터 연해로 달려가 마음과 힘을 다해 운행할 배를 마련하여 점차로 발송하였는데, 가등청정이 갑자기 바다를 건넜습니다. 만일 이순신이 군사를 거느리고 머뭇거린 것을 가지고 논죄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율법이 아닐 것입니다. 이순신은 오랫동안 해진에 있었으므로 장수와 병졸들이 서로 익숙하여 두서있게 짜여 있으니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대신시킨다면 이를 망칠 염려가 있는 듯 싶습니다.”

첫째, 도원수 권율은 가토군 침공 시기 한산도에서 이순신과 함께 작전중이었다.

1월 20일 기록은 이원익이 왜군 침공 사실을 최초로 조정에 보고(이원익의 보고는 『선조실록』 1월 21일 기록에 나온다) 후의 장계 내용으로 왜군 침공 최초 보고 후에도 속속 왜군의 상황을 접수하지만, 내용들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 정확한 정보 파악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1597년 1월 20일경 권율이 한산도에서 작전 지휘를 하고 있을 것이라 확인된 점인데, 1차 연구에서 확인한 ‘권율이 1월 13~14일경에 한산도로 갔다’는 사실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이원익은 가토군을 막지 못한 이순신의 죄는 군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선조의 전교에 동의했으나, 제 때에 출전하지 못한 불가피한 이유를 가감 없이 보고하며 통제사 교체를 반대했다.

2월 1일의 장계에서 이원익은 선조가 이순신이 가토의 침공을 막지 못한 통제사의 책임을 군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국왕이 내린 지시와 같다고 했다. 이는 이유야 어떻든 변방의 장수로서 적을 사전에 막지 못한 데 대한 지휘관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예나 지금이나 작전 결과에 대한 군 지휘관의 지휘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 일방적으로 이순신의 탄핵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전했다. 이순신을 직접 지휘했던 이원익은 전장 환

경과 정세 등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어느 대신들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원익이 국왕에게 보고한 이순신의 출전을 감행하지 못한 불가피한 이유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이래 5년의 전쟁 동안 줄어든 전선과 수군을 확보하려고 징발하여도 사람이 없을 만큼 연해 백성의 삶이 피폐해져 징발이 더딘 점
- 충청도와 전라도 등의 군사를 동절기에 원복시키는 정책에 따라 원소속으로 복귀시켜 한산도 통제영에 머무르는 전선이 적었던 점
- 부체찰사를 전라도와 충청도 등지의 연해로 급파하여 통제영의 수군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시점에 갑자기 왜군이 침공함으로써 제 때에 출전하지 못한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4. 종합분석 및 결론

본 논문은 ‘이순신의 출전 거부설’의 근원인 1597년 2월 1일 『선조수정실록』 기록의 진위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저자의 1차 발표한 연구 결과에 대해 검증, 개선 및 보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왜군이 침공한 시점인 1597년 1월 12일까지 국왕에게 보고된 이순신의 직속상관인 이원익의 장계에서 확인된 바, 이순신은 정유재란 발발 전·후 일관되게 가덕도나 다대포 등 부산해역으로 출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순신의 출전 거부설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왜군 침공에 대비 이순신의 출전 감행 계획에 대해 이원익이 출전 경로상의 적 위협 가능성을 들어 우려를 표했으나, 오히려 이순신은 공격적인 군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이 확인되었다. 이순신이 적의 복병·기습을 핑계로 출전을 거부했다는 기존의 기록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왜군 침공 후 이순신이 출전하지 못한 이유를 보고하는 이원익의 장계에서도 이순신의 출전 명령 거부 흔적은 없음이 확인되었다.

이순신이 선조의 출전 명령을 받고도 출전을 거부했다는 『선조수정실록』 1597년 2월 1일 기록을 근거로 수백년 동안 인식되어 온 ‘이순신 출전 거부설’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기

본 연구를 하는데 이순신 연구가인 박종평님의 조언과 도움이 컸다.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본 논문의 일부는 2021년 12월 제3회 민·학·관·군 정유재란 합동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바 있음을 밝힌다.

참고문헌

- [1] Cho, G. Y. (2021, April 26), "It's not true that General Yi Sun-Shin refused dispatch order from King Seonjo right before Jeongyoo War." Yonhap News,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6095200054>).
- [2] Suh, Y. S. (2021, April 28), Prof. Ko Kwang-Soob "Yi Sun-Shin's refusal against dispatch Order from King Seonjo is not true." The Asia Business Daily,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42810140317604>).
- [3] Cha, S. K. (2021, July 4), Yi Sun-Shin's disobedience during Jeongyoo War is false, Newsmaker, (<https://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9342>).
- [4] Jeong, H. S. (2021, May 5) Article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NST overturned the existing theory by analyzing historical materials on combat-participation right before Jeongyoo War, Gwangju Daily, (<https://kjdaily.com/article.php?aid=1620212291545043062>).
- [5] Hwang, I. S. (2022, January 6) An Yi Sun-Shin's descendant who vindicated Yi's false reputation on disobedience, Newsmaker, (<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5828>).
- [6] Ko, K. S. (2021), A Study on Yi Sun-Shin's Willingness to Follow the Order of King Seonjo to Dispatch the Navy in the Period, Journal of KNST, Vol.4, No.1, pp. 1-13.
- [7]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Seonjosujeongsillok(1643-1657), February 1st, 1597 (<http://sillok.history.go.kr>).
- [8] Jo, S. D. (1986), Chungmugong Yi Sun-shin, Yeongyeong Publisher, p. 271.
- [9] Choi, Y. S. (2007), A Holy Place of the Nation 'Goha-do', Hoon, pp. 143-145.
- [10] Jang, H. G. (2009), Naval Fleet Commander Yi Sun-shin and Woo Eui-jeong Jeong Tak, Soonchunhyang University Yi Sun-Sin Research Institute, Vol. 11. pp. 18-19.
- [11] Jae, J. M. (2011), Yi Sun-shin (Baek-ujong-gun), Happy Tree, pp. 54-56.
- [12] Kim, D. J. (1995), Janggye written by Lee Won-ik in Ori Teacher's Books (Korean version translated by Kim, D. J.), Yeogang Publisher, pp. 508-519.
- [13] Kim, D. J. (1995), Janggye written by Lee Won-ik in Ori Teacher's Books (Korean version translated by Kim, D. J.), Yeogang Publisher, pp. 520-521.

- [14]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Seonjosillok(1596-1597), December 5th, 1596 (<http://sillok.history.go.kr>).
- [15]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Seonjosillok(1596-1597), December 8th, 1596 (<http://sillok.history.go.kr>).
- [16]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Seonjosujeongsillok(1643-1657), January 1st, 1597 (<http://sillok.history.go.kr>).
- [17] Kim, D. J. (1995), Janggye written by Lee Won-ik in Ori Teacher's Books (Korean version translated by Kim, D.J.), Yeogang Publisher, pp. 507-531.
- [18] Lee, W. I. (1596-1597), Janggye written by Lee Won-ik in Ori Teacher's Books(Chinese version) , Yeogang Publisher in 1995, pp. 215.
- [19] Kim, D. J. (1995), Janggye written by Lee Won-ik in Ori Teacher's Books (Korean version translated by Kim, D.J.), Yeogang Publisher, pp. 526-530.
- [20] Ko, K. S. & Choi, Y. S. (2021), The unknown Yi Sun-shin by us, Book Korea Publisher, pp. 216-242.
- [21]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Seonjosillok(1596-1597), January 2nd, 1597 (<http://sillok.history.go.kr>).